

총학회칙 13일 개정 표결

(설) 대의원총회 폐지, 전학대회로 이양

논의 부족, 의결절차 논란 여지

84년 처음 만들어져 이후 사문화된 서울캠퍼스 총학회의 회칙이 개정될 전망이다.
총학회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전체학생대표자대회(전학대회)를 열어 회칙개정 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총학회는 지난 3월5일 확대전 부회의에서 회칙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회칙개정소위원회(개정소위)를 구성, 3월 전학대회에 인준받아 본격적인 개정작업을 벌여왔다.
개정소위는 84년 학도호국단을 폐지하고 총학을 건설할 당시 학생총회를 통해 통과되었

던 회칙을 기초로 해서 개정안을 마련해 전학대회에 상정한 것이다.
회칙개정안은 전문과 총칙이 14장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대학의 목적과 경회인의 자세, 학생회의 위상을 밝히고 있다.
전문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회칙의결기구로서의 학생총회와 전학대회 △특별기구와 과단대 학생회 △조직, 선거 △회칙개정 등의 지위와 권한을 규정해 놓고 있다.
84년 회칙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대의원총회의 권한을 전학대회로 갖도록 한 부분이다.
전문에서 대의원총회는 '회칙개정의 의결과 심의 및 승인, 학생회 예산안 심의와 승인, 집행부 해임결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학생회를 견제·감시하는 기구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전학대회에 그 권한을 이양하고 있어 학생회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우려를 낳는다.
한편, 대의원총회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회칙개정의 의결절차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학은 전학대회를 통해 회칙개정을 통과시킬 움직임이지만 과와 단대내에서도 토론

서울 순수취업률 64.9%

서울캠퍼스 92학년도 졸업생의 순수 취업률이 64.97%(작년 순수 취업률 67.8%, 이하 괄호는 작년취업률)로 나타났다.
학생처가 발표한 순수취업률을 살펴보면 의과가 91.39%(86.5%)로 가장 높고 가정대가 41.82%(54.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과 단대별로 취업률을 살펴보면, 문리대가 51.73%(51.5%), 법대 74.78%(63.6%), 정경대 70.1%(77.5%), 사범대 60.71%(67.1%), 한의대 67.74%(89.9%), 치대 69.62%(59.7%), 약대 64.10%(83%), 음대 42.97%(61.3%), 체대 46.49%(51.3%)로 각각 나타났다.
법대와 정경대, 사범대, 한의

영국 도서관 자료이용 가능

수원도서관, LAN망 통해 검색

수원캠퍼스 도서관은 지난 4월부터 영국 국립도서관의 문서제공센터(BLIS)의 자료이용 서비스를 대학원에 설치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산업기술정보 등 타 정보이용기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영국 국립도서관 자료를 대출, 복사할 수 있으며 자료검색은 LAN망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소요시간은 약 2주일이고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도서 대출1권당 기본료1(만

6천원)+항복금(0.5kg이하 7천5백원, 0.5kg이상 10kg미만 1만1천원)
복사료1지료당 10페이지 마다 8천원

박사학위논문 구입:마이크로 필름으로 구입(6만4천원), 복사료로 구입(11만2천원) 단, 미국 학위논문은 6만5천원).

스승의날, 교수·학생 등반대회

참가제한없이 오는 15일 북한산에서

수원 총 9명 복직

수원캠퍼스 학과과는 지난 7일까지 복직희망자의 등록을 완료 한 결과 총 9명이 복직하게 됐다.

복직자의 단대별 분포는 의과대 4명, 사회과학대 자연과학대 각 1명, 공과대 3명이며, 재직이유는 비등록으로 인한 재직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 복직이 3명, 자퇴자가 1명이다. 이중 학생운동 관련 재직자는 신형자가 있으나 학과과는 밝혔다. 현재 복직자는 수강신청, 수강등의 학사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캠퍼스 학생회와 총학생회는 '자부정교 교수 학생 등반대회'를 갖는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과 교수는 당일 오전 10시 노천광장에서 모인 후 북한산으로 출발하게 되며, 등반이 끝난 후 과 과별로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식사는 학교측에서 준비한다.

이 행사는 교수와 학생사이의 벽을 허물고 학교발전을 위한 대학의 시간을 갖자는 의도로 각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나 작년의 경우, 대회 참가비율을 비교적 수와 학생회 간부로 제한하여 그 의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중국방문단 모집

중국 교류 위원회는 자체로 국제 친선 방학대행이 주최하는 중국문화 국제 학기여행 행사에 참가할 연수인원을 모집한다.

이번에 참가하는 연수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보름동안 천진, 북경, 난징, 상해 등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도시들을 견학하고 문화경관을 참관하게 된다.

경희학원 교·직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이면 참가할 수 있으며, 연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6월 30일까지 국제교류 사무처에 여권, 이력서, 재직·재학 증명서, 사진 3매를 제출하면 된다.

행정과장 임금동결 결의

21일, 학교 예산안 극복위해

본교 행정과장은 지난 21일 전체행정과장 회의에 참가, 올해 임금인상 요구를 자체하기로 결정하고 93년도 임금 동결을 단정일치로 결의했다.

이는 학교가 처한 예산상의

과 의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학대회는 그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미경 편집)

제9차 확대운영위 “합의서 이행점검”

수원캠퍼스학생회는 지난 6일 오후 6시 외대 한누리 소극장에서 제9차 확대운영위원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확대운영위원 총 50명 중 27명이 참가한 가운데 합의서 채택된 제9차 확대운영위의 평가 보고, 5월사업 및 투쟁결의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학원자취주최위원회장 한동근(건축4)은 이날 교재부평과 및 보고에서 “5월중에 등교금 합의서 이행점검 및 진행상황을 공개할 것”이며 각과 학생협심회 공개요구서 발송계획, 교양교과 환복을 위해 오는 20일 오전까지 과단위로 대학체육과 ‘한국사’교재를 취합할 것, 교문 신사에 관한 원상복구 등 그동안의 교재부 사업을 보고했다.

한편 이날 등복금 합의에 따른 차액분과 이재에 관한 부분은 결정되지 못했다.

금성전선 기자재 기증 8억원 상당, 산학협동기금도



11층, 학부 8층)을 새로 들여온다.

이밖에 구입되는 기자재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전자회로 반도체와 분자의 진동, 회전운동을 정확히 관찰할 수 있는 ‘아크 레이저, 사파이어, 루비’ 등의 인공보석을 합성할 수 있는 ‘고온·고압 화학 반응로’ 등으로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고가의 수입품이다.

정형제(물리대·화학) 학과장은 “지금의 교육환경이 대학평균과 비교하면 뒤떨어졌으나 다소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평가제를 전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화학과로 거듭 내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과는 실험기자재 구입 외에도 실습실 확보, 우수 교수 유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교무위원 회의에 앞서 열린 감사대 등장에서는 본교 조영식 총장은 컴퓨터 통신망

詩 문에 현상 공모

15일 마감, 형식제한없이 3편이상

본사는 개교 44주년과 창간 38주년을 기념하여 대학인들의 문예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예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위해 '제4회 대학주보 문예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 ▲공모기간: 1993년 5월 15일까지
- ▲참모부문: 시(원고만, 형식없이 3편이상)
- ▲참모지역: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원고제출처: 서울캠퍼스 편집실
- ▲심사: 교내 경쟁교수 2인과 본사가 위촉한 시인과 문학전문가 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본사 주간교수로 하며 총 6인으로 구성, 심사한다.
- ▲입상작 발표: 5월 24일자 대학주보 지면을 통해 발표
- ▲입상작 처리:
 - 1) 당선작 1편: 상금 및 93학년도 2학기 장학금 원액지급
 - 2) 2차 당선작 2편: 상금 및 2학기 장학금 30% 지급
 - 3) 입선작 4편: 각자 소정의 상금 지급

- ▲입상작 발표: 5월 24일자 대학주보 지면을 통해 발표
- ▲입상작 처리:
 - 1) 당선작 1편: 상금 및 93학년도 2학기 장학금 원액지급
 - 2) 2차 당선작 2편: 상금 및 2학기 장학금 30% 지급
 - 3) 입선작 4편: 각자 소정의 상금 지급

42기 수습기자 추가 모집

모든 바람은 대학주보로부터!

1. 지역: 과 단과대학 1학년
2. 모집부문: 취재기자, 문화기자, 사진기자
3. 모집기간: 5월 5일10시부터 5월13일까지
4. 모집마감: 5월13일 오후5시
5. 원서배부 및 접수: 양현숙 본사 편집실
6. 전형일시: 시문-5월13일 오후5시 수문-5월14일 오후5시30분

—대 학 주 보 사—

제4회 대학주보 시문에 현상공모



“이제는 봉합을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우리 대학주보사는 경희문학과 함께 해왔습니다. 자기만의 소중한 글을 찾고 함께 읽고 비평하는 자리. 열려있는 문학의 마당을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더이상 시들을 잠재우지 마십시오.